

건강 칼럼

겨울철에 웬 식중독?... 노로 바이러스의 조용한 공격

그냥 상식으로 식중독은 덩고 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 관심을 갖기로 대부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균은 세균성 식중독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발육이 왕성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 사고는 발생하며 심신의 건강에 위해하다.

여름철 식중독 균은 주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겨울철에는 노로 바이러스(Noro virus)에 의해 발생한다.

노로 바이러스는 영하20℃에서도 잘 살아남으며 감염활성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겨울에 심상하고 차디 찬 '생굴'을 먹었다가 노로 바이러스로 죽을 고생을 하는 것도 이 특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1968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노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워(Norwalk)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처음 발병하여 노워바이러스(Norwalk virus)라고 불리다 발음하기 쉽게 노로 바이러스라고 바뀐 것이고, NV 라고도 한다. 단체생활, 폐쇄 집단 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잦으며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보고된다.

식품안전나라가 제공하는 한국의 식중독 통계를 보면, 원인이 밝혀진 것 중엔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이 제일 많다. 100도의 열로 1분 이상 가열하면 소멸된다. 85도의 열로 1분 정도 가열해도 적당히 소멸된다 완전하지는 않다. 70도의 열로는 5분 이상 가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로 바이러스 10~100개 정도의 적은 입자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력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다. 식품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감염되기도 하므로 특히 손을 꼼꼼히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감염경로는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채소류, 어패류 등을 날로 섭취하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물(지하수 포함)을 마시거나, 생필품, 소모품 등 오염된 물건 등과의 접촉, 환자와의 접촉, 구토물에 의한 공기 중 전파로 감염될 수

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감염된 경우 대개 24~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되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미열과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초기에는 감기나 독감, 코로나 증상과 유사하므로 혼동할 수도 있다.

단체급식, 주부 등 조리종사자가 위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참여를 일시 중단하고, 격리, 관찰하고 회복된 후에도 2~3일 정도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진료, 처방을 받고 다른 사람과의 직, 간접 접촉으로 인한 전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자의 분변, 구토물, 침, 오염된 손에 의해서도 전파가 되므로 화장실, 변기, 각종 손잡이 등 주변 환경을 철저히 소독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예방도 가능하고 조치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새만금 예산 회복 문제

전북지역 정치인 등 주요 인사가 새만금 예산 회복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도민들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예산 회복의 명분을 찾아 정부와 여권을 설득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만금 입주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LS-엘앤에프메타리솔루션(주), 하이드로리움, 성일하이텍(주), (주)이디엘 등 이차전지 기업 9곳을 비롯해 SK E&S, OCI SE(주)까지 총 11개 새만금 입주(예정)기업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핵심 광물 등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항만과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추진 중인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차전지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비해 늦게 시작했는데도 추진 속도는 6개월가량 앞서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공동관거 예산 조기집행, 원활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각종 인허가·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등에 있어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내 여당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와 대통령실을 설득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새만금 예산 회복에 힘을 실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의견을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즉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끝까지 설득하기 바란다.

신통일한국 초종교기도회

최근 전주에서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기도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모든 종교가 나아가는 길은 한길'이라고 뜻을 모았다. 전북종교인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가정연합, 천도교 등 각 종단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신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주요 지도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강조되는 메시지 등을 소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참혹한 전쟁은 종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성찰했다. 이 시대 각기 삶의 현장에서 영성 회복과 신통일한국 기반 조성,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제반 실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위기와 전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해야 한다.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 뜻을 합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화합하여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절실하다.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 원수가 없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성직자들의 모임이 중요하다. 오늘날 종교는 다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종교는 정치, 사회와 무관할 수 없다.

비관적 성찰은 필수적이다. 사회, 국가, 세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종교인들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종교의 사명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종교 평화와 통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보행방법

겨울철 이른 일몰시간으로 인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점점 어두어져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추운 날씨 때문에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 보행자들이 많아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운전자가 피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녁시간대 보행자가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도로변으로 보행을 하다보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발견치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길·빙판길에서 운전 중 운전자가 제어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습관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행자는 야간 또는 눈이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해 운전자

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춥다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걷지 말고, 항상 주위를 살피 돌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행 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는 무단횡단이 꼽힌다. 무단횡단 사고의 치사율은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보다 치사율이 두 배 이상 큰 위험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운전자들도 평소보다 차간거리 2배 이상 확보 및 감속운전 등의 안전한 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겨울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이정우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팔레스타인 지도에 손도장 찍는 튀르키예 어린이



2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려 시위대를 따라나선 한 어린이가 팔레스타인 지도 모형에 손도장을 찍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